

## 1. 들어가며

교환학생을 갈 생각에 설레어 하며 이 글을 읽고 있을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포르투갈로 교환학생 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한국에 잘 알려진 국가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 또한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오기 전까지 포르투갈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처음부터 포르투갈로 교환학생을 올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이후에도 포르투갈에서의 교환학생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환학생 활동이 끝난 지금 누군가가 포르투갈에서의 생활에 대해 묻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교환학생을 지원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지원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교환학생을 포르투갈로 갈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역시 의심하지 말고 평화로우면서도 정열이 넘치는 포르투갈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ST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신 분이려면 앞으로 찾아올 정말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2. 출국하기 전

교환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비자 신청 서류입니다. 준비하는 데에 어려운 것은 없으나, 생각보다 번거롭고 시간이 제법 소요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비자 신청서, 사진 1매, 여권 및 여권 사본, 파견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 허가증, 범죄 경력 회보서, 은행 잔고 증명서, 해외 여행자 보험, 에이즈 및 B형 간염 검사 결과지, 항공권 예약증, 숙소 예약증, 신원 동의서입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서류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포르투갈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이후에는 대사관에 이메일로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은 뒤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요금을 내고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몇몇 서류를 빼먹고 안 가져가거나 잘못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대사관에 방문하시기 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한지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보다 빠르게 발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비자 발급이 늦어져서 6주를 꽉 채우고 나서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므로 출국 날짜를 고려하여 최대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서류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행기표입니다. 비행기표는 반드시 왕복 항공권으로 구매하셔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유럽 여

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교환학생 선정 직후에 최대한 빨리 항공권을 구매하셔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기가 끝난 이후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여행할 국가(EU에 속해있는 국가여야 합니다)를 선정하여 입국과 출국 항공권을 유동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귀국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니, 귀국하는 항공권의 변경 및 취소가 조금 더 쉬운 항공권을 구매하여 만약의 경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스본에서 머물 숙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IST에서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환학생들 중에서 오로지 20명 정도만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신청 공지는 IST의 학사 일정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공지 메일이 전달된 다음날에 기숙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자리가 배정되므로 기숙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면 이메일로 전달되는 공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까지 지하철을 타고 통학해야 하고 한 방을 룸메이트와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숙사 지원에 실패하여 학교 근방의 플랫폼에 방을 구했습니다. 방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 Facebook의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리스본에 도착한 이후에 직접 방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방을 구하는 방법은 물론 리스본에서 직접 방을 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 학기가 이미 시작했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구해야 하므로 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싸고 좋은 방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포르투갈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줄 포르투갈 사람이 없다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Facebook의 페이지를 참조하는 방법의 경우,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방을 계약하게 되므로 중개 수수료가 붙지 않아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게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페이지에서 방을 구할 수 있는데, 제 포르투갈어 선생님에 따르면 casas e quartos em Lisboa(리스본의 집과 방) 등의 그룹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나, 중개자가 없으므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판매자와의 부정확한 소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uniplace라고 하는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가 머물고 있는 방을 계약했습니다. 이 중개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 등을 필터로 검색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방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아서 계약을 요청했을 때 판매자가 수락한다면 계약이 성사되는 구조입니다. 방을 직접 볼 수 없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한국에서 방을 구하기에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저는 uniplace를 이용하여 방을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싸고 좋은 매물은 학기가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계약되므로 최대한 빨리 방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리스본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라서 방값이 결코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월 350~400유로 정도의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파견을 오기 전에 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기 정착 비용으로 사용할 돈으로 800유로 가량을 한국에서 환전해왔고, 이후로는 한국에서 발급 받은 하

나은행의 국제학생증을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형식으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각각 하나씩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용할 돈을 전부 계좌에 넣어오는 대신에, 달마다 조금씩 자동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과소비와 혹시 모를 분실/도난 사고를 대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포르투갈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환전 수수료와 해외 출금 수수료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만난 친구들의 추천에 따르면 N26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지정된 ATM에서 출금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주간에도 학교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해외 송금 수수료 등의 요금을 고려하여 각자의 사정에 맞게 사용할 계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짐을 싸야 합니다. 짐을 쌀 때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지만, 포르투갈에서, 혹은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가져오길 잘했거나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 같았던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방수 기능이 있는 외투 혹은 신발: 포르투갈의 여름은 매우 맑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을부터 이듬해 봄이 되기 전까지는 유럽 전역이 우기인데, 특히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포르투갈은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우산을 쓰더라도 옷이 잔뜩 젖거나 우산이 뒤집어 지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방수 기능이 있는 점퍼나 신발을 가져오신다면 비 내리는 포르투갈의 우기를 무사히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기구: 대부분의 수업이 PPT를 이용하여 진행되므로 과제, 프로젝트, 시험 공부 등은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종종 필기구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유럽의 필기구는 한국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필기구를 소량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젓가락, 주방용 가위: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나오게 되면 원치 않아도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던 젓가락과 요리할 때 쓰는 가위는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젓가락과 가위를 가져오신다면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 동전 지갑: 포르투갈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데, 5유로부터 지폐를 사용하고 그보다 작은 통화는 동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돈을 사용할 때 정수 단위로 가격이 책정되기 보다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동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현금을 쓰더라도 대부분 지폐를 사용하는 한국과 다르게 동전이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때 동전을 따로 수납할 지갑마저 없다면 불편함이 배가 되므로 잊지 말고 동전 지

갑을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 크기가 넉넉한 배낭과 100ml짜리 소형 용기: 이 물품들은 교환학생 파견 중에 여행을 다닐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유럽 내에서 이동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유럽의 저가 항공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기내에 반입하는 가방 이외에 수하물을 부치게 되면 항공권의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책가방으로 사용하다가 여행을 갈 때는 여행 기간만큼의 짐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배낭을 챙기시고,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크기의 100ml짜리 소형 용기에 액체류를 담아간다면 훨씬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수영복/해변 용품: 포르투갈에는 정말 많은 해변이 있고 연중 기후가 온화하여 바다를 즐기기에 최적의 나라입니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의 날씨가 한국의 여름 날씨만큼 덥거나 따뜻하므로 해변에 놀러가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환학생이 서핑을 배우기도 하고 쉬는 날에는 해변에 가서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놀이 용품을 간단하게 준비하여 새로 사귄 친구들과 휴일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기 장판: 한겨울에도 영상의 온도를 기록하는 포르투갈이지만, 오히려 이런 온화한 기후로 인해 실내의 난방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포르투갈에서 가을과 겨울을 지내게 된다면 전기 장판을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전기 장판의 경우 부피가 커서 가져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 여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간이 전기 장판을 미리 구매해서 가져오시면 포르투갈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 3. 학교생활

IST의 1학기는 9월 세번째 주에 시작됩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 두번째 주부터는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공지는 이메일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행사 진행에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하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정식 등록하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교환학생을 여러 개의 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IST의 멘토가 배정됩니다. 이 날 이후로 특별히 조별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교환학생들이 만나는 첫 자리이므로 꼭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 주말 동안 welcome party, city rally, dinner party 등의 행사가 개강 전에 이루어 집니다.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참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IST에는 서울대학교와 같은 교환학생 대상의 버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만나는 IST의 멘토들과 친분을 이어나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을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주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됩니다. 수강신청의 경우, 한국에서 교환

학생을 신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찾아보고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대학교와 비슷하게 처음 한달 동안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업을 들어보고 나서 수강 취소하거나 새로운 강좌를 신청하는 등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정정 방법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네 개의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세 개의 수업은 전공 수업이었고, 나머지 한 개의 수업은 포르투갈어 수업이었습니다.

- Reaction Engineering 2 (반응공학2):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4학년 2학기 수업으로 개설되는 반응공학2로, IST에서는 석사과정 1학년 1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수업으로 개설됩니다. 수업 전반부에는 heterogeneous catalysi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후반부에는 이를 활용하여 반응기에 적용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화학생물공학부에서 개설되는 물리화학2, 반응공학1을 수강하고 추가적으로 열 및 물질전달 수업을 수강하였다면 큰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은 이론 수업과 문제 풀이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문제 풀이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가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Integrated Chemical Engineering (통합화학공학): 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utility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개설되는 수업 중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수업이 존재하지 않는 수업으로, 평소 수업 시간에 다루는 반응기, 분리기 이외의 다양한 utility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 역시 IST에서는 석사과정 1학년 1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수업으로 개설되므로, 반응공학2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개의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과 알고 지낸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수월합니다. 이 수업 또한 이론 수업과 문제 풀이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시험 문제가 문제 풀이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와 연관되어 출제됩니다.
- Catalysis and Catalytic Processes (촉매개론): 화학생물공학부 4학년 1학기 수업으로 개설되는 촉매개론으로, IST에서는 석사과정 2학년 1학기 혹은 5학년 1학기 수업으로 개설됩니다. 반응공학2 수업에서는 heterogeneous catalysis에 대해서만 다루는 반면, 이 수업에서는 homogeneous catalysis에 대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강좌를 수강한 이후라면 역시 어렵지 않게 수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전반부는 반응공학2에서 다루는 heterogeneous catalysis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homogeneous catalysis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 Portuguese class - A1 level (포르투갈어 A1): 비록 서울대학교에서 학점 인정은 안되지만, 포르투갈에 한 학기 동안 머무르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IST에서 개설되는 포르투갈어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제가 수강한 A1 수업은 아주 기초적인 포르투갈어를 가르쳐주는 수업이었습니다. 75유로의 수강료를 추가로 지불하였고, 주

2회, 10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직접 포르투갈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전반적인 포르투갈 문화에 대한 간단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를 배운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좋았지만, 저녁 늦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대학에서는 절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됩니다. 특히, IST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20점 만점에 10점을 넘기면 통과가 되고, 점수에 따라 A에서 E까지의 성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보다 시험을 잘 봐야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강좌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업을 수강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교수님이나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공부한다면 문제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따라서 test1/2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거나 한번의 test만 치르는 수업도 있습니다. 전자는 중간/기말고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후자는 기말고사 한번만 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test 이외에도 별도의 exam이 존재하는데, 이는 test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다시 전 범위를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간고사(test1)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면 기말고사(exam1)를 전 범위로 볼 수 있고, 이 시험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면 재시험(exam2)을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볼 때 학생이 직접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내에 시험지를 판매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 시험 전에 미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IST 캠퍼스 내에는 여러 개의 도서관이 존재하는데, 이 도서관은 학생증이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Central building, South tower, North tower 등의 건물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도서관과는 다르게 이들 중 대부분이 저녁 8시경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토목 공학과 건물에 있는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도서관보다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여 주로 교내의 카페나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화학/화학공학과 건물인 South tower의 카페의 경우 점심 시간에는 노트북 사용이 불가능하니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T의 캠퍼스 내에는 여러 개의 식당이 있고, 카페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식당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만들어서 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3유로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포르투갈 학생들이 학교 식당을 추천하지 않아서 저는 주로 학교 근처의 저렴한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거나 집에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 4. 일상생활

기숙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방을 구해서 한 학기 동안 리스본에서 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실과 주방이 모두 갖추어진 원룸 형태의 자취방이 흔한 반면에, 유럽에서는 방을 제외한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의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형태의 셰어룸이 보편적입니다. 학교 근처

의 방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가에서 건너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제가 지냈던 플랫폼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에서 온 12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대개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지만, 제가 머무른 플랫폼은 3층짜리 작은 건물에서 지내는 구조여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다 보면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갈등은 주로 공용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냉장고는 어떻게 분할하여 사용할지, 선반은 어떻게 사용할지와 같은, 사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입주한 직후에 친구들과 토의를 거쳐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혼자 참기만 하거나, 반대로 화부터 벌컥 낸다면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차이를 좁혀 나간다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서로 많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즐거운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 다같이 술집에 가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고,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대접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다같이 요리를 해서 작은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을 함께 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타지 생활 중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쉼어룸에서 지내게 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좋은 인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숙사 혹은 쉼어룸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매일매일의 끼니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유럽의 외식 물가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물론 저렴한 학교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매년 이용하기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마저도 큰 지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료품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종종 요리를 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식자재는 리스본 시내 곳곳에 있는 대형마트(Continente, Pingo Doce, Lidl, Mini Preço)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rtim Moniz 역 근방에 주로 분포해있는 아시아마트를 이용하면 고추장, 쌈장, 라면 등의 한국 식자재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하기 힘든 식재료나 물건이 있다면, 리스본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콜롬보를 찾아가시면 대부분의 물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에 취사 도구도 갖추어져 있으므로 출국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워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스본에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리스본에 잠시 머무르고 가는 경우라면 한번에 1.5유로씩 나가는 viva viagem이라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달 이상 머무르면서 종종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스본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서 한달에 30유로 혹은 40유로를 충전하여 버스, 지하철, 트램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30유로를 충전하면 리스본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40유로를 충전하면 리스본을 비롯하여 리스본 근방의 인접도시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교로 종종 여행을 다닐 계획이 있다면 40유로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만 23세 이하일 경우 오리엔테이션 주간엔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Saldanha 역이나 Marques de Pombal 역 등의 특정 사무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학기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카드 발급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가므로 아침 일찍 찾아가야 서류 작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후에 찾아가다가 100명이 넘는 대기 인원을 기다린 끝에 카드 발급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전일 기준으로 한달 동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초마다 새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사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는 공유 차량 서비스인 Uber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도시의 크기가 서울에 비해 굉장히 작으므로 Uber를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가 제법 먼 곳에 친구들과 놀러갈 때도 Uber를 사용하신다면 대중교통보다 더 저렴하게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통신을 위해서는 로밍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유심칩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Vodafone 혹은 NOS에서 SIM 카드를 구매합니다. 특히 Vodafone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YORN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추천합니다. 굳이 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SIM 카드가 한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SIM 카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 5. 포르투갈에 대해서

지난 반년간 포르투갈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friendly"하다는 점입니다. 교환학생 생활 중에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물론 IST의 학생들일 것입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 주간과 그 이후에 열린 학교 축제에서 IST의 학생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낯선 한국인 학생에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구가 되고 장난을 치고 농담을 던지며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웃음이 많은데다가 다른 라틴 국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므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근방의 국가들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 의 음식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포르투갈의 음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낮은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볼 수 있습니다.

- 에그타르트(pastel de nata): 포르투갈에 대해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 음식이 바



로 에그타르트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pastel de nata라고 칭하며, 리스본의 Belem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리스본에 위치한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싸고 맛있는 에그타르트를 맛볼 수 있고, 에그타르트가 처음 만들어진 Belem 지구에서는 pastel de Belem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에그타르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 해산물 요리: 대서양과 인접한 국가답게 굉장히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요리라고 한다면 대구(포어: bacalhau/영어: cod fish) 요리를 들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대구를 요리하는 방법이 1,000여 가지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포르투갈 사람들의 대구 사랑은 정말 각별합니다. 그 외에도 문어, 정어리, 연어 등을 이용한 해산물 요리가 굉장히 많으니, 포르투갈에 머무는 동안에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시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샌드위치(Bifana, Prego): 샌드위치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 가도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bifana, prego라고 하는 포르투갈만의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Bifana는 돼지고기, prego는 소고기를 이용한 샌드위치인데,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샌드위치이지만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지갑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학내 카페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동티모르 등의 국가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포르투갈어와 비슷한 스페인어의 경우 스페인에서 쓰이는 스페인어와 다른 국가에서 쓰이는 스페인어가 굉장히 유사한 데에 비해, 포르투갈어의 경우 포르투갈에서 쓰이는 포르투갈어와 브라질에서 쓰이는 포르투갈어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쓰이는 포르투갈어는 발음이 불분명하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반면에, 브라질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음을 또박또박하고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있고 브라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 등,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드넓은 브라질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방언이 존재하는 것도 이 어려움을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르투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는 발음이 불분명하고 낯선 발음들이 많아서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와 같은 로망스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면 비슷한 단어가 많고 문법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므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어를 배운 이후로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에 여행을 간다면 간단한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했듯이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므로 포르투갈어를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교환학생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단어나 말을 숙지한다면 포르투갈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6. 친구 사귀기

저는 군대라는 조직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졸업이 가까운 시기였음에도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저의 목표였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다를 것이 분명했기에, 출국하기 전에 가장 기대되면서도 걱정되었던 것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열린 마음입니다. 리스본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 대부분이 유럽에서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으로 리스본에 오게 된 유럽 국가의 학생들입니다. 유럽의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는 한국과 여타 서양의 국가가 가지는 차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낯선 문화를 받아드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영어 실력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사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들 사이에서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하게 되므로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더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나오기 전에 열심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억양의 영어를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자의 억양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 대부분 소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WhatsApp이라고 불리는 메신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연락을 할 때 자연스럽게 WhatsApp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보통 본인의 전화번호를 연동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면 자동으로 WhatsApp에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전에 미리 WhatsApp에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주간엔 만난 친구들 중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여행을 종종 다니면서 혹은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된 친구들과 매일 마주 앉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주관하는 파티, 축제 혹은 친구의 생일 파티 등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리스본의 경우 ELL 혹은 ESN이라는 단체에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주관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7. 여행 -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외진 곳에 위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혹은 학기 전후에 여행을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않습니다.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저가 항공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하여 저렴한 비행기표를 구매하신다면 얼마든지 유럽 여행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과 바로 이웃한 스페인의 경우, 야간 버스를 활용한다면 숙박비를 아끼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오기 전에는 포르투갈의 역사, 문화 등등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는데, 알면 알수록 호기심이 생겨서 학기 중에는 포르투갈의 다양한 도시들을 많이 여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리스본을 제외하고 그동안 가봤던, 혹은 가려고 하는 도시들입니다.

- 신트라(Sintra): 신트라는 리스본 근교 여행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페냐 궁전, 무어인 성, 헤갈레이라 별장 등이 유명하고, 오리엔테이션 주간에는 IST의 교환학생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카스카이스(Cascais): 리스본의 근교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도 있고 서핑 클래스를 통해서 서핑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 세짐브라(Sesimbra): 리스본 남쪽에 있는 근교 도시인 세짐브라에서는 도시를 둘러싼 산에서 하이킹을 하면서 대서양의 절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습니다.
- 세투발(Setubal): 리스본에서 기차를 타고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근교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여행지는 아니지만, 세투발에서 페리를 타고 갈 수 있는 Troia의 해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해질녘이 아름다웠습니다.
- 에보라(Evora): 저는 ELL을 통해서 친구들과 투어 형태로 여행을 갔습니다. 시내에서 오래된 유적을 탐방할 수도 있고, 교외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알가르브(Algarve): 알가르브는 사그레스(Sagres), 라고스(Lagos), 포르티망(Fortimao), 알부페이이라(Albufeira), 파루(Faro) 등의 도시가 있는 포르투갈 남부의 해안 지역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유럽에서도 유명한 휴양지라서 여름이면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대서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비수기에도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 오비두스(Obidos): 포르투갈의 중세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리스본에서 버스를 타고 한시간 가량 걸리는 곳에 있으며,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합니다.
- 페니세(Peniche): 대부분의 여행객이 Berlengas island라고 불리는 섬을 여행하기 위해 찾

는 곳입니다. 과거 요새가 있었다는 Berlengas island는 좋은 하이킹 코스를 지니고 있고 풍경이 아름다우므로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 파티마(Fatima): 파티마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로써,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정말 의미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가장 주요한 종교인 카톨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 나자레(Nazare): 세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를 만날 수 있다고 알려진 도시입니다. 매년 서핑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겨울에 찾아가면 정말 높은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 코임브라(Coimbra): 포르투갈의 중부에 있는 도시로써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코임브라 대학이 위치한 곳입니다. 포르투갈의 학문이 궁금하다면 코임브라에 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대학 도시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가 영감을 받았다는 코임브라 대학의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 포르투(Porto): 포르투갈의 제2의 도시로써, 한국의 부산과 비슷한 입지의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포르투갈의 관광지이고, 포르투갈 북부의 중심지입니다. 리스본에 비해서 가을과 겨울에 날씨가 쾌은 날이 더 많으니 가급적이면 여름이 가기 전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아베이루(Aveiro): 포르투의 근교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포르투갈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항구 도시입니다.
- 브라가(Braga): 포르투갈의 학문이 궁금하다면 코임브라를 가야한다면, 포르투갈의 종교가 궁금하다면 브라가를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종교의 중심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당이 많은 도시로, 포르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 기마랑이스(Guimaraes): "Aqui Nasceu Portugal(여기서 포르투갈이 시작되다)"라는 문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포르투갈의 기원이 되는 도시로, 역사적인 유적지를 찾아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 아조레스(Azores): 아조레스는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포르투갈의 군도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포르투갈 본토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이 유명하여 아조레스산 치즈, 버터 등은 포르투갈 내에서도 유명한 상품입니다.
- 마데이라(Madeira):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날두의 고향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이곳은 포르투갈보다는 아프리카에 더 가까워서 포르투갈과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 8. 마치며

교환학생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교환학생 활동을 마치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니다. 바쁜 와중에 비자를 준비하면서 교환학생을 가는 게 옳은 선택일지 고민하기도 했고, 하루 종일 영어로만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받으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저를 성장하게 해주었고 교환학생 활동을 마치는 지금 돌아보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기억보다는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여행지에서 멋진 풍경을 마주하기도 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편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모험을 할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낸 지난 반년은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었고, 덕분에 여러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도전을 겁내지 마시고 새로운 세상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활동에 도움을 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선생님들과 공과대학 동문회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